

옛 전남도청서 탄흔 추정 흔적 410개 발견

복원추진단, 최신 과학기법 동원해 찾아내...탄두 추정 물질 1개도 본관 회의실·경찰국 건물 뒷편서 집중 발견...국과수에 감정 요청 5·18 당시 벽면과 비슷한 벽 만들어 실제 사격 후 비교 분석키로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과 당시 경찰국 건물 뒷편에서 5·18 당시 탄흔·탄두 추정 물질 410개가 발견됐다.

정부가 최신 과학기술기법을 동원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 찾기에 나선 결과로, 복원추진단은 당시 도청 벽면과 비슷한 벽을 만들고 여기에다 사격까지 해 최종 탄흔·탄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대상으로 한 실제 사격도 진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날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옛 전남도청에서 발견한 410개의 탄흔 의심 흔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은 진행했다.

추진단이 지난 6월,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 대한 탄흔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1차 조사 결과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입작전에서 계엄군 진입로와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항거한 도청에서 410개의 탄흔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0개의 탄흔 의심 흔적은 대부분 경찰국 뒷편과 본관 회의실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은 상무중정작전 지침에 따라 이날 새벽 4시께 전남도청 후면에 도착한 3공수여단 특공대원들이 뒷문을 넘어 작전을 개시했다. 전남도청 뒷담이 바로 경찰국 뒷편이다. 전남도청 회의실은 상무중정작전에 대항한 최후 항쟁의

공간이다.

추진단은 또 전남도청 회의실 우측면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도 발견,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추진단은 2015년 리모델링 작업 과정에서 회반죽과 페인트로 매워진 건물에서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방사선 투과, '3차원(3D) 흔적 지도 작성', '철근 탐사기 통한 외벽 흔적 분석' 등 첨단과학기술기법을 동원했다.

'적외선 열화상 촬영법'의 경우 온도차를 이용해 균열 및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 하지만 깊이 10mm이하의 금속 물질 탐지가 어려운 단점 때문에 금속 부면에 대한 식별이 우수한 '방사선 투과 촬영법'을 사용하면서 보완했다.

여기에 외벽 표면에서 관찰할 수 없는 내부 금속 이미지를 빛을 쬐어 찾아내는 최신 기법인 '테라헤르츠' 조사 방식도 동원했다.

당시 상황과 유사한 실험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1980년 당시 만들어진 도청 외벽과 비슷한 벽

면을 자체 제작해 실제 사격을 통한 비교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7포병여단 670포병대대가 당시 옛 전남도청 외벽과 유사한 벽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단단해지는 내년 1월 실제 총탄 사격을 진행해 비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각종 화기범 탄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수목 6그룹과 동일한 종인 은행나무와 소나무를 대상으로 실제 사격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진단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도형 복원추진단장도 "경찰국 뒷편과 본관 회의실에서 다수의 탄흔들이 발견 된 것은 1980년 당시 도청 진입작전의 계엄군의 이동경로와 시민군과의 대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모든 탄흔이 탄흔으로 밝혀지지 않아 최첨단 과학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흔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연루 장흥군 공무원·업자 징역형 구형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장흥군 공무원들과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3)씨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팀장 B씨 징역 2년, 과장 C씨 징역 1년 6개월, 재무 담당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계약과 다른 화장실을 납품한 설계업체 관계자 E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민선 6기인 지난 2018년 전남민정청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영등항 제품을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택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 강제추행...무죄 선고 왜 "옆자리 가족도 몰라...피해자 진술 신뢰성 의문"

택시를 함께 탄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면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인 B(18)양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는 10분 동안 택시 안에서 피해자 등 뒤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 앞 쪽으로 손을 옮겨 목을 짓을 하는 등 100여차례 추행했다는 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이다.

택시 안에 택시기사를 제외하고도 A씨와 A씨 동거녀, B양과 B양 부모 등 5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없는데다,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던 B양 가족마저 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상황, 피해자와 다른 참고인 진술과의 논리적 일관성, 핵심 사안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거짓 진술의 동기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택시기사 뒷 자석에 타 무릎에 앉힌 동거녀 허리를 잡고 가는 등

안 추행했다는 B양 진술에 의심을 품었다. B양 어머니가 B양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A씨가 피해자를 수습차례 추행했다는 점, A씨 추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A씨 동거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지 '의아함을 지워버릴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B양 어머니는 당시 추행과 관련된 어떤 기억조차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A씨에게 '삼촌, 뭐하세요?'라고 항의하는 취지로 말한 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양이 A씨와 10년 이내 두 차례 만났을 뿐이며 B양 아버지도 A씨와 그리 가깝지 않은 관계인데,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택시에서 저항하거나 동승한 부모에게 즉시 말하지 못했다는 B양 진술도 합리성 측면에서 의심을 품었다.

택시가 출발하고 1분 가량 지나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택시에 탈 때 A씨가 '엄마가 타니까 옆으로 와라'며 허리를 끌어당겼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질 점, A씨의 범죄 전력을 알고도 몰랐다고 한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피해를 당한 딸에 대한 가족들의 무심한 태도 등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렇게 28일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배출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에 따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 결국 해 넘겨

국가물관리위원회 본회의 못 열여

영산강 죽산보(洲) 해체 여부가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올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예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원회 회의와 당면적 기관 회의를 거쳐 죽산보·승촌보 처리 방안

을 결정키로 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단일안을 마련, 최종 의결한 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영산·섬진강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유역위에 대한 안전도 검토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의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의견도 다양해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 2019년 승촌보에 대한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라는 방안을 내놓은 뒤 1년 넘게 최종 방안이 미뤄지면서 지역 환경단체들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산강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지역 인식 부분에 대한 평가와 4대강 사업 전후 비교 등을 토대로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안이 도출된 것"이라며 "2년이 다되도록 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광역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